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우울: 자기 개념의 매개변인 효과

신 민 영 김 호 영 김 지 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에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자존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또한 자존감을 자기 개념의 여러 영역으로 나눈 후 어떤 영역과 관련된 자존감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ADHD 증상을 높이 호소할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ADHD 증상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ADHD 증상이 자존감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의 저하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 개념의 여러 영역 중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자존감의 저하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논의되어 있다.

주요어 :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자기 개념,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지 혜 /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TEL : 02-3410-0931 / FAX : 02-3410-0070 / E-mail : jihk@smc.samsung.co.kr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이하 ADHD)는 아동기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질병 중의 하나로,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다활동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들어 ADHD와 공존질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Milich & Laundau, 1982). 그러나 ADHD로 진단 받은 아이들이 모두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DHD 증상과 우울 사이에 여러 가지 중재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utter(1989)는 이러한 공존 질환에 대해서 이들 두 질환이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증상이 있을 가능성, 두 질환에 공통의 위험인자가 존재할 가능성, ADHD가 우울/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 ADHD가 우울/불안장애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발현의 한 형태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한 가설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여전히 논란중이다.

ADHD 증상과 우울의 중재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혹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자기-도식, 인지적 왜곡, 절망감 혹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귀인, 통제소재 등이 있다(Coyne & Gotlib, 1983; Garber & Hilsman, 1992; 최미례 이인혜, 2003에서 재인용).

우울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특히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의 긍정성(Baumeister, 1998),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포함하는 자기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Maddux, 1991) 혹은 자신이 능력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된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ckner & Guare, 1983; Tennen & Herzberger, 1987).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이고 학업성취 수준도 낮다(Rosenberg, 1965)고 보고되고 있다.

Milich와 Laundau(1982)도 ADHD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 아이들에게로부터 배척받고 어울리지 못하게 되며,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지속적인 처벌이나 지적,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러한 결과로 우울이나 불안을 포함한 정서장애가 뒤따르게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ADHD 아동들은 스스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적절감과 함께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Slomkowski와 Klein 및 Mannuzza(1995)의 연구에서도 과거에 과잉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아동들은 현재 다른 정신 질환이 없더라도 정상 아동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도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Ialongo와 Lopez 및 Horn, Pascoe, Greenberg(1994)도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SPPC)로 ADHD 임상 집단 아동과 정상 아동들의 자기 개념을 측정한 결과 ADHD 아동들이 정상 아동들에 비해 학업적, 사회적 수용, 행동 문제,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 영역에서 자기 개념이 유의미

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ADHD 증상과 낮은 자아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lomkowski et al., 1995; Ialongo et al., 1994; Brockner et al., 1983; Rosenberg et al., 1965). 이는 ADHD 증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관련된다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Barkley (1991)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있는 10대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였을 때 자신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대조군보다는 우울증상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ADHD 아동들이 언제나 정상아동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우울감이 항상 자존감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Hoza와 Pelham 및 Milich, Pillow, McBride(1993)의 연구에서도 Harter의 SPPC를 이용해 ADHD 아동과 정상 아동들의 자기 개념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들은 학업,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신체적 외모,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 등에서 정상 아동들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ADHD 아동들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 착각 오류(positive illusory bias)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2년 연구에서도 자기 개념 비교와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있었다(Hoza B., Pelham, W., Dobbs J., Owens J., Pillow D., 2002).

현재까지도 ADHD 아동들이 긍정 착각 오

류(positive illusory bias)로 인해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의견과(e.g., Gresham, MacMillan, Bocian, Ward, & Forness, 1998; Hoza et al., 1993, Hoza et al., 2002), ADHD 아동들이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고 이러한 자존감 저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의견들 간에(Weiss & Hechtman, 1986)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능성은 자기 개념의 여러 가지 세부 측면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존감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학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직업적 측면, 대인관계적 측면 등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Harter, 1990; Marsh, Barnes, Cairns & Tidman, 1984) 이 중 어떤 측면은 외부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측면들은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적응상에 있어서도 어떤 측면에서의 자존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존감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처럼 자존감을 하나의 단일한 척도로 측정했을 경우,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을 감춰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척도가 어떠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어떤 연구에서는 ADHD 아동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연구 대상의 특성이다. ADHD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외부의 피드백과 자신

의 경험이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rickson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능력은 12-20세, 즉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가능하다(Crain, 1980).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를 통해서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부의 피드백과 스스로의 성취 혹은 실패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외부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스스로의 실패 경험은 막연한 정서적 불편감만을 초래할 뿐이며 아동은 이러한 피드백을 자기의 평가와 연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피드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여 스스로를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이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모형을 가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해 보려고 한다. 또한 Harter의 청소년 자기-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이용해 자아존중감을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가장 큰 자아존중감 영역도 부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수도권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641명(남 312, 여 325)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연령 범위는 12-16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3.59세였다.

도구

Conner 성인 ADHD 평정 척도-한국판(Conners' Adult ADHD Rating Scale-Korean: 이하 CAARS-K)

Conners와 Erhardt 및 Sparrow(1999)에 의해 개발된 질문지 중 자기 평정 척도로서 총 66문항에 0-3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9개의 소척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4개의 척도는 ADHD와 관련된 증상 및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을 요인 분석하여 추출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DSM-IV의 진단 기준을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만들어진 두 개의 소척도 및 전체 증상 척도, ADHD 지수, 타당도 척도라 할 수 있는 비밀관성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호영과 이주영 및 김지혜, 조상수(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88, Cronbach's alpha는 .79이상으로 비교적 내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건호, 신민섭, 조수철, 홍강의(2001)가 표준화한 청소년 ADHD 평가 도구인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Short Form)과 CAARS-K 각 소척도간의 상관도 .51~.73($p<.001$)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기-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이하 SPPA)

청소년의 자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8)가 개발한 것으로 총 45문항에 1-4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self-esteem

을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외모, 직업 능력, 이성 관계, 행동 문제, 우정,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의 9개 domain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학업 능력은 '나는 공부를 매우 잘 한다'와 같은 실제 학습 능력을, 사회적 수용은 '나는 내가 대인관계에서 잘 받아 들여 지고 있다'와 같이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수용 정도를, 운동 능력은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하는 편이다'와 같이 신체적인 운동 능력을, 외모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와 같은 자신의 신체적 외양에 관한 만족도를, 직업 능력은 '나는 아르바이트를 잘 할 준비가 되어 있다'와 같은 실제 업무에 대한 준비 자세를, 이성 관계는 '나는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재미있고 관심을 끌게 행동한다'와 같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이나 자신감을, 행동 문제는 '나는 항상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처럼 행동상으로 옳은 일을 하는지, 문제가 될 행동들을 피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정은 '나는 비밀을 함께 나눌만한 친구가 있다'등 자신의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은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등 인간으로서의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다.

Harter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스스로 지각된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점수로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이하 CDI)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3)이 개발한 척도로 총 2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0-2점의 3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8로 내적 일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구절차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Test)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1.0,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알려진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 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NNFI)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NNF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지수는 .05 이하면 좋은 부합도, .08이하면 괜찮은 부합도, .10이하면 보통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1; Brown & Cudeck, 1993).

결 과

변인 평균, 변인 간 상관

ADHD 증상과 자아존중감, 우울감의 측정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ADH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소척도들간에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r = .40 \sim .70$, $all\ p < .001$,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소척도들간에도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r = .15 \sim .58$, $all\ p < .001$. 또한 ADHD 증상과 우울간의 상관이

높은 편이었으며, $r = .15 \sim .37$, $all\ p < .001$, ADHD 증상과 자아존중감, $r = .14 \sim .46$, $all\ p < .001$,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상관도, $r = .15 \sim .64$, $all\ p < .001$,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 매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표 2).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 편차도 제시되어 있다(표 1).

표 1. 변인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CDI	17.62(7.73)		H-학업	12.04(2.69)	
C-부주의	14.07(6.14)		H-사회	13.82(2.98)	
C-과잉행동	15.59(6.56)		H-운동	12.40(3.87)	
C-충동성	14.32(6.45)		H-신체	12.71(3.37)	
C-자기개념	7.71(3.99)		H-직업	12.77(3.03)	
			H-이성	11.82(2.96)	
			H-행동	13.24(2.60)	
			H-우정	15.10(3.15)	
			H-존중	13.12(3.05)	

표 2. 변인들 간 상관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CDI	1.000													
2. C-부주의	.344**	1.000												
3. C-과잉행동	.149**	.537**	1.000											
4. C-충동성	.369**	.696**	.600**	1.000										
5. C-자기개념	.381**	.648**	.396**	.636**	1.000									
6. H-학업	-.469**	-.344**	-.162**	-.226**	-.337**	1.000								
7. H-사회	-.643**	-.272**	.053	-.250**	-.291**	.425**	1.000							
8. H-운동	-.319**	-.185**	.139**	-.165**	-.244**	.220**	.457**	1.000						
9. H-신체	-.150**	-.244**	-.064	-.229**	-.310**	.234**	.210**	.288**	1.000					
10. H-직업	-.281**	-.112**	.114**	-.032	-.116**	.189**	.397**	.285**	.172**	1.000				
11. H-이성	-.225**	-.191**	.085*	-.114**	-.219**	.258**	.351**	.350**	.354**	.305**	1.000			
12. H-행동	-.447**	-.405**	-.267**	-.375**	-.352**	.456**	.411**	.199**	.240**	.254**	.205**	1.000		
13. H-우정	-.457**	-.223**	.007	-.186**	-.224**	.277**	.581**	.274**	.151**	.352**	.267**	.333**	1.000	
14. H-존중	-.604**	-.309**	-.098*	-.298**	-.463**	.506**	.546**	.339**	.472**	.326**	.305**	.493**	.430**	1.000

ADHD 증상과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DHD 증상과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ADHD 증상은 CAARS-K로 측정하였으며, 9개의 소척도 중 부주의 및 기억문제, 과잉활동성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 개념의 문제를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Conners 등(1999)이 성인 ADHD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행동을 반영한 예비 문항을 구성하고 대규모의 성인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 분석한 결과 총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부주의 및 기억문제, 과잉활동성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 자기 개념의 문제였다. 그 외에 나머지 소척도는 ADHD 진단 기준을 성인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 증상을 측정했기 때문에 진단 기준 보다는 ADHD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진단 기준과 관련된 소척도들은 제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Harter(1988)의 SPPA로 측정하였으며, SPPA의 소척도인 학업적 능력, 사회

적 수용, 운동 능력, 외모, 직업적 능력, 이성 관계, 행동 문제, 우정,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 등 9개 소척도를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우울 증상은 CDI의 총점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ADHD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DHD 증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여 모형 1을 구성하였다(그림 1). 모형 1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 = .99, NNFI = .99, RMSEA = .130이었다. CFI와 NFI 값은 .90이상으로 적합하였으나 RMSEA 값은 .10이상으로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수정 지표(modification indices)에 의해 ADHD 증상의 측정치들 간의 상관을 가정하자 RMSEA = .064로 나타나 괜찮은 부합도 수준이었다. 또한 ADHD 증상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beta = .45$, $p < .001$, ADHD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우울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자아존중감이 ADHD와 우울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1에 ADHD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모형 2를 구성하였다(그림 2). 매개 모델인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 = .98, NNFI = .97로 부합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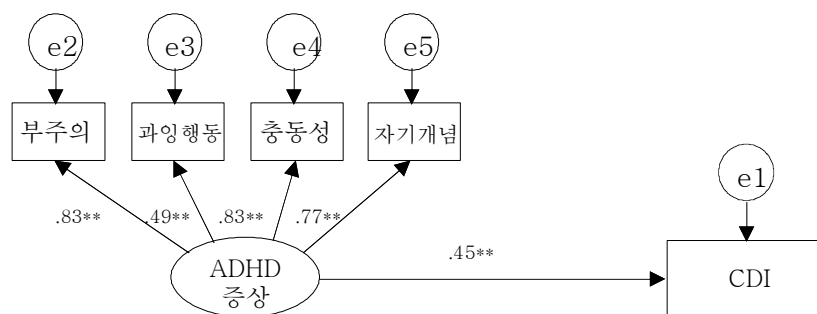


그림 1. 우울에 대한 ADHD증상의 직접 효과(모형 1)

RMSEA 값은 .10 이상으로 나쁜 적합도를 보이

표 3. 모델 부합도 지수

	df	χ^2	NNFI	CFI	RMSEA
모형 1	3	10.795($p=.013$)	.994	.999	.064
모형 2	69	464.211($p=.000$)	.977	.985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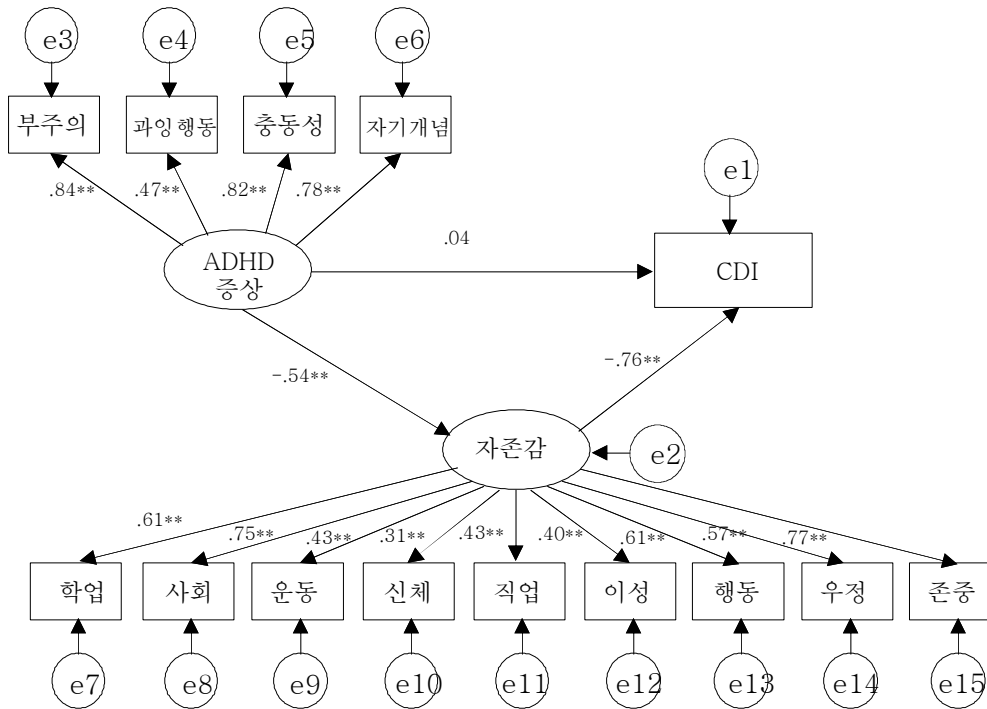


그림 2.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모형 2)

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 지표(modification indices)에 의해 자아존중감의 측정치들간, ADHD 증상의 측정치들간 상관을 가정하자 RMSEA = .095로 적합도가 좋아져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 수정 지표는 원래는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할 경우 χ^2 값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경로를 찾아주는 지표인데, 이론상으로도 자아존중감과 ADHD 증상을 측정하는 각 영역의 측정치들은 각각 서로 상관되어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

에 모형을 수정하였다.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ADHD 증상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beta = -.55$, $p < .001$,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beta = -.78$, $p < .001$, 모두 유의미하여 ADHD 증상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하였던 ADHD 증상과 우울감의 경로가 매개 변인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beta = .04$, $n.s.$, 우울에 대한 ADHD 증상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ADHD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었다. 이론 변수들과 측정 변수들간의 경로에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의 모든 측정치들과 자아존중감이라는 이론 변수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beta = .31 \sim .77$, $all\ p < .001$, ADHD 소 척도들과 ADHD 증상이라는 이론 변수간의 경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47 \sim .84$, $all\ p < .001$.

한편, 자아존중감의 9개 영역의 경로 계수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의 경로 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자존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또한 자존감을 자기 개념의 여러 영역으로 나눈 후 어떤 영역과 관련된 자존감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ADHD 증상을 높이 호소할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ADHD 증상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ADHD 증상이 자존감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의 저하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 개념의 여러 영역 중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자존감의 저하가 가

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ADHD 증상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DHD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ADHD증상이 우울에 직접 영향만을 미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ADHD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인으로 추가한 모형 2에서는 ADHD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은 ADHD 증상의 심각도가 매개 효과를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정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러한 자존감의 저하가 우울 증상을 증가시킨다는 Milich와 Laundau(1982)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Slomkowski(1995)등도 ADHD에서의 자존감 저하와 심리사회적 적응이 부적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자존감 저하와 심리사회적 적응 상 어려움이 ADHD 아동의 장기적인 경과일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들이 긍정 착각 오류(positive illusory bias)로 인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존 연구들에는 반하는 결과인데(Hoza, 1993, 2002),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차이점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연구 대상의 연령 차이를 들 수 있다. Hoza 등(1993, 2002)은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들은 아직 외부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자신을 평가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교적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외부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DHD 아동과 정상 아동들 간의 자기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의 심각도가 자존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Slomkowski(1995) 등은 Hoza(1993) 등의 연구에서는 품행 장애나 반항성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 가치감이 더욱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라는 가설적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측정된 자기 개념의 여러 영역 중에서 모든 영역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 ‘사회적 수용’, ‘학업적 성취’, ‘행동 문제’, ‘우정’ 영역에서의 자존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 ‘사회적 수용’ 영역과 관련된 자존감의 저하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존감을 단일한 척도를 이용해 평가함으로써 ADHD 증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혹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속성을 밝혀 내지 못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ADHD 아동,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 데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ADHD 증상을 높이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자기 개념 영역에서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으나 특히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우울 증상도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학업적 능력’, ‘행동 문제’에 비해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 영역에서의 자존감 저하가 ADHD 증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업적 능력과 행동 문제는 ADHD의 주 증상으로 인해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들인 반면,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은 증상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변의 평가 내지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역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ADHD 아동이 이차적으로 겪게 되는 우울 증상은 그들의 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학업적, 행동적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과 성취감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그러한 행동 문제들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더욱 관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ADHD 아동 뿐 아니라 정상인에게서도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울에 취약하다는 가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Rosenberg, 1985,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Muris, 2001). 결국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ADHD 증상을 높게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정상 청소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념 영역에서의 자존감이 더욱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ADHD 증상을 높게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저하가 사회적 수용,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 등 영역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ADHD 아동이 이차적인 정서적 문제를 발전시키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업적 능력을 키우거나 행동 문제 등을 수정하기 위한 보조보다는 그들이 사회적 영역,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ADHD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우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즉, ADHD 증상과 우울간에 자아존중감이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ADHD 증상이 있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울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여러 가지 자기 개념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ADHD 증상이 어떤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 개념 영역 중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이나 사회적 수용처럼 자기 자신의 수행이나 행동에 대한 주변과 본인 스스로의 평가와 관련된 영역이 ADHD 증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우울과도 관련이 높았다는 것은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ADHD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ADHD 환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Slomkowski(1995)등의 지적처럼 긍정착각오류(positive illusory bias)에 대한 검증은 위해서는 품행 장애나 반항성 장애를 통제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 보고가 아닌 청소년의 자기 보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 보고 검사의 한계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호영, 이주영, 김지혜, 조상수 (2005). 한국판 CAARS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71-185.
- 남민, 조수철, 정인파, 윤혜진 (1996).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와 우울, 불안 증상과의 상호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13-223.
- 반건호, 신민섭, 조수철, 홍강의 (2001). 청소년 ADHD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CAS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18-224.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6.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 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

- 의 분석. 200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위크샵 교재, 임상심리학회.
- Bakley R. A, Anastopoulos, Gueveremont, Fletcher (1991). Adolescents with ADHD: patterns of behavior adjustment, academic functioning, and treatment utilizat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0 : 752-761.
-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201-218). New York: Plenum Press.
- Betsy Hoza, William E. Pelham, Jr., Jennifer Dobbs, Julie Sarno Owens and David R. Pillow (2002). Do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have positive illusory self-concep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268-278.
- Brockner, J., & Guare, J. (1983).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ow self-esteem individual: An attributional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 26, 642-656.
- Cole, D. A. (1991). Change in self-perceived competence as a function of peer and teacher 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82-688.
- Conners, C. K., Erhardt, D., Sparrow, E. (1999). *Conners' Adult ADHD Rating Scales*.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 Coyne, J. C., & Gotlib, I. H. (1983). The role of cognition in depression: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Crain, W. C. (1980). *Theories of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Hall.
- Garber, J., & Hilsman, R. (1992). Cognitions, stress,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 P. Cantwell (Ed.), *Child and adolescent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 Mood Disorders*(pp. 129-167). Philadelphia: W. B. Saunders.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SPPA)*.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pp.292-325). Boston: Allyn & Bacon.
- Hechtman, L., Weiss, G., & Perlman, T. (1980). Hyperactives as young adult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5, 478-483.
- Hoza, B., Pelham, W., Milich, R., Pillow, D., & McBride, K. (1993). The self-perceptions and attribution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ed and nonreferred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 271-286.
- Hoza B., Pelham, W., Dobbs J., Owens J., Pillow D. (2002). Do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have positive illusory self-concep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2), 268-78.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 Ialongo, N. S., Lopez, M., Horn, W. F., Pascoe, J.

- M., & Greenberg, G. (1994). Effects of psychostimulant medication on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od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161-173. Library Holdings Bibliographic Links
- Maddux, J. E. (1991). Self-esteem.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pp. 57-78). New York: Pergamon.
- Marsh, H. W., Barnes, J., Cairns, L. & Tidman, M. (1984).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Age and sex effect in the structure and level of self-concept for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940-956.
- Milich R, Laundau S(1982): Socialization and peer relationship in hyperactive children. In: *Advance in learning and behavioral disabilities*. ed by Gadow KD and Bialer I, Greenwich, JAJ, pp283-3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Rutter M (1989). Isle of Wight revisited: Twenty-five years of child psychiatric epidemiolog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8: 633.
- Sadock, B. J. & Sadock, V. A. (2003). *Kaplan &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lomkowski, C., Klein, R. G. & Mannuzza, S. (1995). Is self-esteem an important outcome in hyperactiv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303-315.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Weiss, G., & Hechtman, L. T. (1986). *Hyperactive children grown up*. New York: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 2005. 3. 30

게재결정일 : 2005. 11. 9

Depression of the adolescent reporting the symptoms of attention-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Min-Young Shin

Ho-Young Kim

Ji-Hae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symptoms and the depression. We measured the self-esteem with the nine self-concept domains in order to find the most vulnerable self-concept domain at the adolescent with ADHD symptoms. 64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In result, the depression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DHD symptoms when it was to the simple models without mediating factors. However, with the self-esteem included in the models as mediating factor, the direct effect of ADHD symptoms on the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mediating model, ADHD symptoms influenced on the low self-esteem, and this influenced on the depression. That is to sa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symptoms and the depression were confirmed. And the social acceptance and the global self-esteem were identified as the most vulnerable domains of the self-esteem among the nine measured at the adolescent with ADHD symptoms.

Keywords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concept, Depression